

사단법인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

법인화 25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글 / 장운격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 부회장)

기념행사

본인은 사단법인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東京電氣管理技術者協會)의 니시다 세이지(西田 誠次) 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동경에 가서 법인화 25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하였으며 축사를 통하여 양국 전기기술인의 우호증진과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는 1970년 9월 26일 통상산업대신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동경을 중심으로 한 일본 관동지방의 「전기보안기술자의 기술 향상을 기하고, 전기보안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협력함으로써 전기보안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당시에는 회원 수 545명이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회원 2,920명, 수탁수용가수도 82,557건으로 증가되었으며 업무의 수탁범위도 500kW 미만에서 1,000kW 미만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부도 동경도내의 4개 지부와 주변의 현 별로 10개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1명 외에 11명의 이사와 감사 2명이 있으며, 협회의 업무 추진과 전기관리기술의 연구를 위한 위원회는 총무위원회·안전위원회·기술위원회·분산형전원위원회·출판부회·광보부회 및 연수부회가 있습니다.

회원의 전기보안업무에 원활한 수행과 상부상조 정신의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제사업, 즉 공제급부·전기계측기의 판매·알선과 회원의 검진알선 등으로 회원의 경제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법인화 25주년 기념행사는 식전의부와 축하의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참석인원은 회원 1,000여명, 내빈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축사는 관동통상산업국장, 동경전력 부사장 및 일본전국전기관리기술자협회 연합회장이 하였습니다. 이어서 표창과 감사장 증정 후 「지금부터의 일본 경제에 대하여」라는 연재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축하의부는 원형식탁이 놓인 대연회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우선 축사는 자원에너지장관 관방심의관에 이어서 대한전기기사협회 권용득 회장의 축사를 본인이 대독하고, 일본전기기술자협회 회장의 건배로 축하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방락(민요)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와 방문중에 친절한 안내를 받았고, 자료구입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다야마 가이지로(田山 嘉一郎) 전무와 관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동경전기관리자협회의 연력과 축사 그리고 붙임말을 첨부합니다.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 연혁

연도	월 일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 사항	한국의 일반사항
1961	7. 1	「공규 570호」의 통칙통달에 의하여 전기관리기술자 제도(안전관리대행제도)의 길이 열림	
1963	6. 29	동경통상상업국의 지도에 의하여 전업 전기주임기술자의 조직화 개시	12. 14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창립 총회
1964	4. 10	전국 전업주임기술자 연락간담회 개최	8. 21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사단법인 허가
1965	3. 1	사단법인 일본전기기술자 자가용전기 전업주임 기술자부회 관동부회 발족	
	3. 12	동경전기보안협회 발족	
1967	12. 25	전기관리기술자의 자격기준 제정	
1969	5. 27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의 사단법인화 추진 의견	
1970	3. 6	사단법인화 준비위원회 설치	
	8. 20	사단법인 창립총회	
	9. 26	사단법인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 설립 허가	
1971	6. 23	업무수탁범위 500kW 미만으로 확대되고, 전기관리 기술자의 신자격 기준 공시됨	
	9. 7	전국전기관리기술자협회 연락회 발족	
1973	1. 18	수탁 10,000건 돌파 회원수 1,000명 돌파	
1974			1. 9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보안대행 개시
1975			4. 18 대한전기기술자협회로 명칭 변경
1980	3. 31	수탁 40,000건 돌파	9. 6 대한전기협회로 합병
	9. 26	사단법인 10주년 기념행사	
1981	10. 1	기술안전위원회내에 기술연구회 설치(8 연구 클럽 설치)	
1983	7. 8	전국전기관리기술자 연합회 설립	
1984	5.	보안업무에 감시장치도입 연구 개시	
1985	1. 15	법인화 15주년 기념 「전기관리기술자필휴」 발행	
	9. 26	법인화 15주년 기념행사 실시	
	10.	정보 및 의견교환차 한국 방문	
1986	9. 30	수탁 60,000건 돌파	
1987	5. 22	공계회 반족	
1988	5. 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① 보안업무수탁범위 500kW 미만에서 1,000kW 미만으로 됨 ② 출력 500kW 미만 수력발전소 · 가스발전소 · 내연력발전소 추가됨 ③ 환산계수 29.9로 됨	
1990	4. 10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500kW 미만의 연료전기 · 태양전지 · 풍력 · 지역발전소가 추가됨	10. 27 대한전기기술자협회 창립 총회 12. 20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술자협회 설립 인가
	9. 26	법인화 20주년 기념행사 실시	
1991			1. 1 대한전기기술자협회 발족 2. 20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 · 해임 확인 및 교육기관 지정
1992	7. 9	동경전력과 자가용수용가 인입용 분기개폐기 조작 위탁에 관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9.	전기관리기술자필휴(개정판) 발행	
1993			「전기관리기술자필휴」의 한국어판 출간
1994	2. 9	전회원용 대상으로한 「정기연수 대강」을 제정	
	5. 24	제24회 통상총회에서 니시다 세이지(西田 誠次) 회장 취임	
	11. 8	전기관리기술자 직무윤리 요강을 제정	
1995	4. 21	개정 전기사업법 공포	
	8.	전기관리기술자 기술수첩 발행	
	9. 4	제1회 정기연수회 개최	
	9. 26	법인화 25주년 기념행사 실시	

축 사

존경하는 니시다 세이지(西田 誠次)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의 법인화 25주년을 맞이하여 본인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뜻 깊은 축하회를 진심으로 경하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전기기사협회를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효의와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분은 법인화한 과거 사반세기에 걸쳐 기술혁신과 관리제도의 개선은 물론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오늘의 경제대국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는 특히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온 한국의 전기기술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분이 성취한 이와 같은 업적과 오늘의 번영에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기계 발전을 위하여 금후에도 유익한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방대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전기설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여하히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전기관리기술자제도가 1974년 전기보안

대행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1991년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일반 전기기술자도 일본의 전기관리기술자제도와 같은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운용상의 문제는 물론 관리기술의 확립과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득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도 여러분의 장년의 경험에 의한 귀중한 조언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두나라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만, 장래에도 이러한 선린과 우호한 관계가 공고히 유지되어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성대한 축하회가 여러분의 협회에 큰 발전을 기약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빌며 아울러 우리 협회와 긴밀하고 내실있는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전기기술인의 따뜻한 우정과 성원의 뜻을 전하면서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9월 26일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
회 장 권 응 득

붙임 말

동경전기관리기술자협회의 법인화 2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아 축하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직접 대화를 통하여 양협회의 사정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더욱 친밀한 우호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양협회는 거의 같은 전기사업법과 선임제도 그리고, 기술기준 등에 의하여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전기사업의 초창기부터 국가기술자

격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전 세계에서 같은 제도에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뿐이므로 이 제도의 발전과 연구는 공동노력에 의하여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기기술과 관리기술의 발전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지속적인 교환은 물론 정부당국과 전력회사 그리고 유관단체의 협력과 전 전기기술자의 자질 향상과 화합단결이 전기기술인의 위상정립과 직결될 것이므로 앞으로 국제 교류 및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